

## 學生指導의 本質的 의미

李 仁 浩

(서울대 西洋史學科)

## I

언제부터인지 꼭 집어내기 어려운 우리의 대학들은 거의 모두가 학생 騷擾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더우기 自律化 政策 선포 2년째를 맞이하는 새 학년의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움직임이 어떠한가에 대한 불안은 이미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전체로 파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절박한 실정 때문에 '學生指導' 하면 우선 정부나 대학당국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시위하는 것을 막는가?"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이란 실제로 자기들의 역량 밖이라 함을 수년에 걸친 경험을 통해 잘 아는 교수들은 '지도'라는 말만 들어도 '지겹다'는 느낌부터 갖게 된다. 학생들 또한 지도교수와 의 만남이란 교수의 체면을 지켜 주기 위해 아주 외면하지는 못하나 매우 귀찮은 형식적 절차쯤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어 가는 가운데서 점점 모호해져 가기만 하는 것이 과연 대학에서 학생지도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學問的 指導를 하는 것 이외에 인간적 지도를 하는 것이 가능

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지도의 한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런 아주 상식적인 듯하면서도 그리 간단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어 본 일이 없이 교수들에게는 학생들에게 대한 이른바 個別指導制라는 것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학생지도는 계속 공전을 거듭하고 대학은 정상적인 기능을 점점 더 마비당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II

대학이란 무엇하는 곳인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막연한 합의조차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학에서 학생지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 교수, 대학당국, 학부모,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 일반 사이에 오해와 불신과 마찰만을 자아내는 기본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한다. 大學의 本質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대학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되어 왔고 바로 본지 1월호에도 매우 훌륭하게 정리된 글이 실려 있다.<sup>1)</sup>

1) 金忠起, "大學에서의 學生指導機能 活性化", 「大學教育」, 1985, 1(통권 제13호) pp. 67~73.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많은 논의들이 대개 다 抽象的 次元에서의 理想論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려 깊은 몇몇 사람의 외로운 호소로 끝나고 만다는 데서 발견된다. 그러한 논의가 대학에 관한 어떤 規範的 構圖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어 한편으로는 大學管理政策에 반영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가지는 대학에 대한 관념과 기대에 어떤 方向提示的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어떤 곳이고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할 일은 모름지기 어떠한 일들이고 하는 데 관해 대학의 주체인 그들 당사자들간이나 대학을 운영하는 행정당국, 그리고 대학에 여러 가지 기대를 거는 사회 사이에 어떤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혼란 속에서 학생에 대한 학문적 지도 이외에 理想的 지도라는 의무가 교수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학당국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 指導方針이라는 것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시간적 부담은 주면서도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반세기에 불과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高等教育機關의 수는 해방 당시 19개교에서 현재 257개교로 늘어났고 학생수도 7,800여 명에서 100만명으로 늘어났다. 40년 사이에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무려 130배로 늘어났으니 이것은 인구 증가율의 몇 배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며 개발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0년대 우리의 대학 進學率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70%가 될 것이라 한다.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수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다만 자격 있는 교수를 찾기가 학생들을 더 받아들이는 일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고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1:34로 크게 불리해지고 말았다. 物理的 施設이 학교나 학생수의 증가에 따르지 못한 것도 물론이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대학들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해 가는 가운데 질적 관리는 그에 뒤따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대학의 이러한 量的 팽창과 質的 관리의 소홀이 학생지도라는 관점에서 가지는 뜻이 무엇인가? 우선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지적될 수 있

는 것은 지도를 해야 할 교수진의 總力量과 지도를 받아야 할 학생들의 수요 사이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다는 점이다. 대학의 大衆化趨勢는 학생들의 경우나 교수진의 경우나를 막론하고 절대적 수준의 저하를 수반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타격을 입은 것은 교수진측이었다. 우선 앞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교수 일인당 담당 학생의 비율이 크게 불리해졌을 뿐더러 교수인원의 총원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교수진의 평균 연령이 크게 저하되었고 일시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학문적 역량에 대한 평가 척도도 완화될 수밖에 없었다. 많은 경우에 대학 졸업 후 이삼년만에, 또는 연구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강단에 서는 사례가 특히 5년 전의 敎育改革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학생들의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교수들이 지게 되는 부담이 학생지도의 효과라는 점에서 볼 때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 우수하지 못한 학생을 가르치기란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들며 더 높은 자질을 갖춘 교수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학사회가 대중화되고 또 학생들과 교수진 사이에 학문적 수련기간의 차이가 좁혀졌다는 사실은 그 어느 것이나 학생들 앞에서 교수의 권위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말할 것도 없다.

바로 이러한 점점 더 불리해져만 가는 여건 속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을 학문적으로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지도하라는 요청을 외부로부터 계속 받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은 과연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있다면 그러한 힘이란 어떤 通路를 통해 발휘될 수 있는 것인가?

### III

知識의 傳授만이 대학이 가지는 사명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학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임은 물론이고 따라서 교수가 가지는 권위는 무엇보다도 학생들 앞에서 가지는 知的 優越性에서 비롯된다. 지적 우월성에는 그 사람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만이 아니고 생각하는 양식, 마음의 자세 등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점에서 탁월함이 인정될 때 학생들 앞에 교수의 권위는 서게 된다.

情報의 홍수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일단 우세한 교육 배경을 가지고 출발한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정보의 거의 유일한 근원이었던 책이 우선 그의 독점물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금의 생활 여건 속에서는 아무리 단단한 학문적 토대를 쌓고 나서 강단에 서기 시작한 교수라고 해도 수많은 도전자들이라 볼 수 있는 학생들 앞에서 계속 자기의 선도적 위치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專門分野의 일을 교수들간에 분담해 가며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교수들의 지적 권위가 번득이는 젊은 지성의 도전에 응수할 수 있고 교수의 권위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한 계속적 노력의 필요성 때문에 세계의 굴지의 대학들에선 교수들의 강의 담당시간을 계속 줄여 나가고 연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교수의 지적 권위가 당당하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분야의 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권위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유전공학의 권위자라고 해서 반드시 人格者로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정치학의 권위라고 해서 현실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이 곧 진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수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은 개인의 의견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 그가 교수라는 사실 때문에 그 의견이 진리로서 존중되지는 않으며 또한 되어서도 안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수로서의 역할과 하나의 自然人으로서의 역할은 구별되는 것이며 그 두 가지 사이에 권위의 자동적 이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적 영역 밖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미 교수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인간관계를 통해서이며, 정치적 견해나 이념 같은 것은 강의를 통해 전수될 수 있는 학문적 진리처럼 교수의 권위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수가

학생에게서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때에는 오히려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素養에 의혹이 가는 것이며 따라서 그가 가지는 지적 권위마저 실추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가치나 도덕에 관한 교육이 대학에서는 외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것은 물론 아니다. 모든 학문의 기저에는 道德的 誠實性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지식의 齷齪性에 관한 인식이 깔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기본 명제이다. 그러나 무슨 방법으로 그러한 인식을 깨우치고 항상 새롭게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대학은 초·중등교육기관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 나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른바 도의교육, 윤리교육이란 역효과를 발휘하며 순수한 지식 전수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결과만을 가져 온다. 해방 이후 계속 추구되어 온 반공교육의 역기능에서 가장 절실한 예를 볼 수 있다.

#### IV

대학의 학생지도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점은 대학생은 대개 이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들이지 모방을 통한 학습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의 학생들이 완성된 人格體라는 말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心性의 본바탕이나 생활의 기본 습성은 형성된 나이의 젊은이들로서 사물에 대한 選別的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며 그들의 정신세계는 교수들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써 넣을 수 있는 백지상태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교수들이 가르치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흡수하여 소화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주는 데로 받아들여지는 않는다.

교수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식을 성실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合理的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찾고자 하는 해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지적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의문들에 대해 좀더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교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무리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어떤 결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학생들은 젊은이들 특유의 반발심을 일으키고 자기들을 몰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염려가 없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어떤 이미 내려진 결론을 주입시키겠다는 의도에서 고안된 교과목들, 예를 들어 지난 몇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그처럼 강조되어 왔던 이데올로기교육이니 국민윤리교육이니 하는 내용의 과목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반작용을 낳게 된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교과들은 지식보다는 價値觀을 넣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대학에서는 이미 그런 식의 籠說的 가치교육은 통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설사 교수들이 모두 합의해서 어떤 가치를 주입시키기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교육에서는 좀더 교차원의 간접적 방법, 곧 도의적 문제에 관한 의식을 깨우쳐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쌓아 가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나 이루어지는 어떤 장기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교수가 이끄는 방향으로 학생들이 이끌려 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교수의 집단이라는 것이 전공의 분야가 서로 다른 것이나 마찬가지로 도덕적 感受性에 있어서나 정치적 견해에 있어 차질이 심한 집단이고 보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학생지도 방식이란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가도록 요구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매우 고통스런 과정과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속한 결과를 낳을 수 없는 價値教育의 영역에서 조속한 효과에 기대를 거는 과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긴 안목에서 걸진적으로나마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성격의 교과목들이 들어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어 가는 것이며 교수들이 대학의 정규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되

는 것이다.

## V

지적인 면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면에서 교수로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學則을 만들고 시행하는 敎授團(Academic Corporation)의 구성원으로서이다. 교수들이 학칙을 정하고 집행하는 일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들은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며 교수회가 대학의 중추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학생생활에 대한 교수들의 지도력이란 크게 발휘될 수가 없다. 실제로 안정된 대학생활의 체계 속에서는 학칙의 문제가 자주 거론될 필요가 없고 교수들은 대체로 무관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와 같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는 교수의 권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威嚴評價의 권한까지도 침해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교수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시시각각 새로이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학생지도에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면서도 흔히 잊혀지는 것은 권한과 책임은 항상 병행하는 것이며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요구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도 결국은 敎授團對 學生團이라고 하는 집단적 차원의 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고서 개별적 차원에서의 직접적 접촉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학술적인 면에서의 지도는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평가될 수가 있지만 교수개개인이 학생개개인의 생활을 지도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학과별 또는 학년별 擔任制라는 것이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는 효과란 학생들의 생활에서의 學事的 측면이나 厚生福祉의 측면에 대한 관리의 범위를 크게 넘어설 수는 없다. 학생들은 학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을 펴 나갈 의욕과 정력을 가진 집단이며 그 모든 활동에 대해 교

수들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학생 씨름에 대한 지도교수제라는 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의 씨름활동이란 바로 교수의 지도를 벗어나서 자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는 의도와 욕망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할 때나 교수들의 자문이나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 학생들의 태도이며 그것 이상의 역할을 교수가 해 낼 수 있는 길은 없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自治活動에 대해 어떤 한계를 부여하는 데는 두 가지 간접적인 길밖에 없다. 하나는 학문적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업의 내용이 지적으로 배후적이고 그에 따르는 과제의 양이 방대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다른 활동을 특별히 전개하지 않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나 사회적 관심이 충족되고 정력이 교육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넓혀 주는 동시에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지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代表機構를 통해 자기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두 가지 길은 모두 다 적어도 학원내에서는 폭 넓은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며 교수들이 자기가 맡은 전문분야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에 투자하는 시간과 정력이 대폭 증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지금과 같이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아주 높은 가운데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잡일에 교수들이 항상 動員되는 우리 실정에서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이 지금과 같이 위로부터의 지시를 받아 학생들의 행동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어하겠다고 나서는 경우 거꾸어지는 효과

란 극히 몇몇의 학생이 시위에 가담하는 것을 혹시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학생들 전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오히려 교수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그들의 권위만 더욱 실추될 뿐이다.

## VI

지도의 기본에는 지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간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미 성인이라 자처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인격의 존중이란 그들의 의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으며 理性的 對話를 통한 지도 이외에 다른 지도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대학생들도 교수들이나 마찬가지로 治外法權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니다. 대학이라는 집단에 속한다는 이점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고 대학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는 일은 누구에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란 대학의 본기능인 학문적 탐구와도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며 대학이 가지는 비판적 기능이 합법적 통로를 통해 충족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활동이 政治化하는 경향이 감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정치적 中立은 위로부터 존중될 때 비로소 밑으로부터도 존중될 수 있는 것이고 대학에서의 학생지도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지도란 學術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을 통제하는 일이란 이미 교수들의 그리고 대학당국이나 문교당국의 역량 밖의 일이다. 그러한 사실이 직면되고서야 비로소 대학생들의 現實參與에 대한 형식적 책임전가만이 아닌 효율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다. \*